

이탈리아 2012년 봄/여름 시즌용 실의

국제전시회 트렌드 <1/3>

◎ 주역은 “자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2012년 봄/여름 시즌용 실의 국제 전시회인 “피티 이마지네 피라티”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발표된 봄/여름 시즌용 실의 트렌드를 보고 한다.

“피티 이마지네 피라티”의 “스파치오 리체르카”와 많은 출판사의 얀(yarn)과 컬러(color)의 경향에 의한 포커스는 “자연(自然)”이었다.

컬러는 자연으로부터의 환경과 요소의 영향을 받아, 자연색소를 모방하여 새로 만들었다. 자연에서 넘치는 색은 식물, 광물 및 동식물의 천연색소를 통하여 다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섬유와 얀의 염색에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뺄 수 없다. 창작에 있어서는 새로운 착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와 같은 경우이다.

◎ “키·워드(key-word)”

식물에서부터 광물에 이르기까지, 또는 홍차에서 찻흙까지, 탄닌으로부터 “테라 코타(terra-cotta : 점토를 구워서 만든 도기기와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장인기술이나 수공예로 만든 얼룩색이 만들어진다. “핸드 메이드”는 단순한 캐치 프레이즈가 아니고,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애착을 느낀 창작에 해당된다.

◎ “환경친화적인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툴(tool)을 통하여, 사물을 낳은 대지에 숨겨져 있는 측면을 발견하고 있다. 자연과 기술은 서로 적대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자연과 기술이 완전히 공존하고 있다.

◎ “시즌 컬러(season color)”

시즌(season)의 주역인 색은 원래 네이비 블루(navy blue)이다. 신규 여름용 베이직 컬러

는 브라운(brown)계이다. 옐로우(yellow)색은, 자유자재로 사용되며, 핑크(pink), 프크시아(Fuchsia : 열대 아메리카의 작은 식물로, 흰색, 복숭아색, 홍자색 등의 꽃이 뿜)와 밝은 블루(blue)나 터키블루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메탈릭 컬러(metallic color : 금속적인 광택의 색)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골드(gold)나 구리, 실버나 컬러 메탈(color-metal)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카키 그린(khaki-green), 어스 컬러(earth-color), 옐로 머스타드(yellow-mustard)로부터 머스타드 그린(mustard-green)이나 모스 그린(moss-green), 퓨어 화이트(pure-white)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촉감과 표면감”

* 테크놀러지로 샌드 터치(sand-touch)의 오가늠한 마무리, 드라이감이 있는 내추럴 리넨(natural linen), 코튼이나 리넨과 비스코스(viscose)의 블렌드(blend)

* 미묘한 투명감이나 미소한 릴리프(relief), 작은 자카드(Jacquard) 무늬, 다이아몬드나 보석, 수정(水晶)같은 내추럴 컬러 톤(natural color tone)의 조합

* 허니(honey)나 골드(gold)의 컬러 사용, 화려함과 신비한 매력. 아일렛(eyelet)이나 틸을 통해서 보는 무늬, 리넨·코튼·비스코스의 당김감

* 동식물로부터 받은 판타지도 컬러풀한 자카드나 변화가 있는 편물

* 실크·울 브랜드(silk·wool brand), 테크노, 팬시안에 의한 풍부한 데님 톤(denim tone)

* 리프(leaf : 잎)나 베지터블(vegetable)을 모방한 리브(rib) 조직이나 턱(tuck)♣